

이야기 7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주제말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39b]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기도하여라. 나는 조금 더 가서 기도하겠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매우 슬퍼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괴롭다... 나와 함께 머물며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세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격려해 주었어요.

얼마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지만, 그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신 후 다시 두 번 더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돌아오실 때마다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또 잠들어 있었어요.

마침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바로 그때 유다가 칼과 몽둥이를 든 군인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유다는 미리 이렇게 신호를 정해 두었어요.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가 인사하며 뺨에 입을 맞추었고, 군인들은 곧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어요. 그 바람에 그의 귀가 잘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이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 후 군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갔고,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 도망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서로의 말도 맞지 않았어요.

마침내 가야바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렇다. 그리고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가야바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어요.

“신성모독이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그는 죄가 있으니 죽어야 한다.”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빈칸을 채운 뒤 암송해 보세요. (마태복음 26:39b)

내 아버지여 만일 _____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
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_____ 의 _____ 하옵소서
하시고

활동 1

다음 질문들을 읽고 정답에 "O" 표시를 하고, 알맞은 대답을 적어보세요.

1 예수님을 판 제자는 누구인가요?

- a. 베드로 b. 야고보 c. 유다 d. 요한

2 예수님께서서는 붙잡히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나요?

- a. 예수님께서서 제자들과 함께 해변에서 놀았다.
b. 예수님께서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
c. 예수님께서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계셨다.
d.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

3 마태복음 26장 47-56절을 읽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붙잡히셨나요?

4 가야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활동 2

아래 공간에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을 그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 어떤 이들은 자고 있거나 예수님을 지키려 하는 모습, 유다, 그리고 군인들을 포함해 보세요)